EASTERN ECONOMIC FORUM

주간 정보 다이제스트: 극동 경제 발전

№10 22.08.2016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6년 8월 15일, www.primorsky.ru

동방경제포럼 행사장에서 자원봉사자들 활동 시작

극동연방대학교 내 설치된 인증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포럼 행사들에 총 4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할린과 캄차카, 하바롭스크 주를 비롯한 극동 여러 지역에서 인원이 충당됩니다.»라고 연해주 청소년국 알렉산드르 카이다노비치 국장이 밝혔다. http://primorsky.ru/news/115773/

2016년 8월 11일, TASS

동방경제포럼서 희귀야생동물종 보호 자선 달리기 대회 개최

2016년 9월 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극동 희귀야생동물종인 아무르 호랑이 및 극동 표범 보호 자선 달리기 대회가 개최된다. 주최측은 환경문제에 정계 및 재계의 엘리트들과 대중의 관심을 끌고자 한다. 자선행사에 블라디보스토크 모든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초청된다. http://tass.ru/novosti-partnerov/3530037

2016년 8월 11일, TASS

하바롭스크 주, 동방경제포럼서 총 투자규모 3000억 루블 이상의 7개 프로젝트 발표

하바롭스크 주 시포르트 주지사는 동방경제포럼 참가를 위해 선별된 프로젝트에 말미지스키 금광석 산지 개발 (Amur Minerals Co. Ltd., 투자액 2600억 루블) 무치카만 석탄 터미널 (SakhaTrans Co.Ltd, 240억 루블), 하바롭스크 공항 여객터미널 건설 (하바롭스크 국제공항사, 240억 루블)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http://tass.ru/ekonomika/3528057

2016년 8월 11일, TASS

중국 외무부: «동방경제포럼은 러중협력의 중요한 플렛폼»

«중국측은 상호 이익을 주는 조건하에 러시아 극동 개발에 활발한 참여를 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협력을 강화하고 보유한 모든 강점을 활용하며 국경지역 협력의 발전을 지지할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중국 외무부측이 밝혔다. http://tass.ru/mezhdunarodnaya-panorama/3525226

2016년 8월 10일, EastRussia.ru

동방경제포럼서 러중금융위원회 회의 개최

러중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에 러시아 스베르방크와 하얼빈 은행의 제안으로 설립되었다. 2016동방경제포럼에서 러중금융위원회의 첫해 활동결과를 논의하고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협력계획을 논의한다. 현재 위원회는 양국 49개의 금융 및 은행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http://www.eastrussia.ru/news/zasedanie-rossiysko-kitayskogo-finansovogo-soveta-proydet-v-khode-vef-2016/

2016년 8월 10일, Vedomosti

마산드라 중국시장 진출 준비

크림반도의 최대 와인생산자인 마산드라는 작년도 수준과 동일한 15000톤 이상의 포도 수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동시에 마산드라는 와인 생산을 10.5% 증가하여 1050만병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야니나 파블렌코 사장이 밝혔다. 사장은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동방경제포럼에서 아시아지역 잠재파트너들과 협상을 할 계획이다. http://www.vedomosti.ru/newspaper/articles/2016/08/11/652586-vkrattse

극동 국가정책

2016년 8월 11일, IA REGNUM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부 대표들과 극동 발전 종합정책 논의

갈루시카 장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극동지역 자연적인 인구증가는 935명이며 이주를 통한 인구감소는 3.2배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5개월간의 자연적인 인구증가는 2015년 동기간 수치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장관은 선도개발구역들과 자유항들의 통계자료도 발표하였다. 올해 51개의 신규 산업이 가동 예정이다 (투자된 금액 800억 루블). 추가로 투자규모 6170억 루블의 61개의 투자프로젝트들이 건설 및 설치 단계에 있으며 1130억 루블 규모의 28개 프로젝트들은 설계도 작성 및 예산 책정 단계에 있다. https://regnum.ru/news/society/2165647.html

2016년 8월 11일, EastRussia.ru

극동 발전을 위해 매년 460억 루블 예산 책정

«메드베데프 총리는 2025극동발전 국가프로그램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새 프로그램은 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신규 정책들을 포함한다. 2017-2019년 재정지원 기준이 연간

467억 루블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로써 지속적인 극동 발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갈루시카 장관이 밝혔다. http://www.eastrussia.ru/news/galushka-orientiry-byudzhetnogo-finansirovaniya-dalnego-vostoka-v-razmere-46-7-mlrd-rubley-ezhegodno/

2016년 8월 10일, TASS

2024년까지 극동에서 1조 1600억 루블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들 실현

«지역에 이미 유치된 투자금으로 2024년까지 총 규모 1조 1600억 루블인 295개의 프로젝트 실현이 가능하며6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갈루시카 장관이 밝혔다. 또한 지역으로의 투자유치는 계속되고 있음을 장관이 밝혔다: «1년 안에 극동으로 유치된 투자액이 2조 루블에 도달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http://tass.ru/ekonomika/3525958

극동 경제

2016년 8월 10일, RIA News

러시아 하원, 극동 에너지요금 인하 검토

극동 전기요금 인하 관련법안이 러시아 하원 가을 회기에 검토될 준비를 마쳤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극동의 발전을 억제하는 문제이자 현재 해결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러시아 평균보다 요금수준이 높은 극동 지역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러시아 하원 가을 회기에 검토될 준비를 마쳤으며 극동 전기요금인하가 2017년 1월1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라고 갈루시카 장관이 밝혔다. http://ria.ru/economy/20160810/1474045057.html#ixzz4H6RkO55q

극동개발 신규 정책: **성공사례**

2016년 8월 15일, Interfax

동방경제포럼서 신식 러시아산 쾌속선 공개

하바롭스키 조선공장은 최고속도 70km/h에 승선인원 100명인 A45-2형 쾌속여객선 생산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선박은 수심이 얕은 곳을 운항할 수 있으며 선착장이 없는 곳에도 정박이 가능하다.

지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A45-2형 선박 몇대가 생산주문되어 있으나 공장은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 동방경제포럼에서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박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이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753998&sec=1671

2016년 8월 11일, www.tpp-inform.ru

일본기업, 연해주에 자동차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

일본산업체가 연해주에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Advanced Material Japan Corporation 사장이자 공동소유주인 나카무라 시게오는 현재 러시아 중부에 유사한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만 판매처가 인접지역으로만

국한되어 있다고 말한다. «배터리 완성품을 극동으로 운송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동에 조립공정을 포함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극동 연해주에 설립할 계획입니다.»라고 사장이 밝혔다. http://tpp-inform.ru/region/live/primorskiy-kray/36803/

2016년 8월 11일, www.vostokmedia.com

하바롭스크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 영구 파이프 생산 가동

하바롭스크 신규 파이프 공장은 상수도, 가스공급, 하수도 등 용도 폴리머 파이프에 대한 극동 전체의 현재 및 미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이러한 파이프들을 동시베리아나 러시아 중부에서 극동으로 공급하였다. http://www.vostokmedia.com/n294888.html